

Misson 학중학술,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혼동하여 쓰고 있는 ‘꽤나’와 ‘꽤나’를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두정이나 심술껌나 부리게 생겼다, 꽤나 고집이 세겠군처럼, ‘꽤나’나 ‘꽤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 먼저 ‘꽤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그 용례를 살펴보면 ‘돈 꽤나 있다고 남을 깔보면 되겠니?’, ‘얼굴을 보니 심술껌나 부리겠더구나.’ 처럼 씁니다. ‘꽤나’는 부사로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로”를 뜻하는 ‘꽤’의 힘줄말입니다. ‘이번 시험에 붙으려면 꽤나 고생해야 할 것 같다.’ 처럼 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띄어쓰기로 ‘꽤나’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고, ‘꽤나’는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군선교회 최전방 군부대 방문

‘긴장감 너머 사랑과 찬양 넘치는 최전방’

주님의교회 군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최전방 판문점을 방문했다.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하여 다소 엄려한 되었지만 군선교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교회를 출발하여 올림픽대로를 지나 자유로를 통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갔다. 다른 때와 달리 검문 시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철문이 열리고 기대했던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은 걸렸다. 선교부장인 강진식 안수집사의 인솔로 군선교 회원과 샬롬찬양대, 기쁜소리찬양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영환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프론티

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장병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었다. 2년이라는 군생활은 하나님께서 장병들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며 이 훈련을 승리할 때 각자의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가치 있는 인생이 다시금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샬롬찬양대의 이동훈 집사의 지휘로 남성 합창, 소프라노, 테너독창, 합창 등 주옥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5층 멀티미디어실 방음벽 공사



5층 멀티미디어실에 방음벽이 설치됐다. 기존의 5층 멀티미디어실과 도서실 사이의 벽은 임시로 분리된 것이라 그동안 멀티미디어실에서의 발생하는 작은 소리도 도서실에 전달되어 양쪽 모두가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공사로 인해 도서실과 멀티미디어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실은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인터넷부/음향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로 인해 도서실과 멀티미디어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실은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인터넷부/음향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추수감사예배

오는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교회는 30CUP 예배를 추수감사예배로 드리기로 하고 특별히 교회 안팎의 환우가족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만들 것을 기획하고 있다. 30CUP 예배는 예배시간을 기존의 4시에서 3시 30분으로 이동해서 드리게 된다.

피택자 교육 - 봉사부 실습



이번 주에는 12명의 피택자가 실습에 참여 하여봉사부의 사역을 몸소 체험을 했다. 교회 주변 환경지화(토요일 결혼 예식으로 인한 하객들의 휴지, 담배꽂초 수거 등) 및 커피 제공을 위해 컵 세척하는 일을 실습했다.

피택자들은 이번 봉사실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여리 곳에서 각자 맡은 부서가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교우들 모두가 교회 주변의 여러 환경에 신경을 써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겠다고 다짐하며 실습을 마쳤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복한 지리산 여행



지난 10월 13-14일 (금-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행가람) 가족 38명이 지리산으로 MT를 다녀왔다. 전남 구례에서 근무하는 김채수 집사가 지리산의 절경을 행가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철저히 준비한 모임이었다. 금요일 아침에 출발해 지리산 자락의 송원유원지에 4시간 만에 도착하여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흠뻑 젖은 4개의 조로 공부하던, 그리웠던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배우자를 서로 축복하며 또한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렸다. 찬양 후, 자매들의 <오 신실하신 주> 특송에 이어 정 회성 목사의 <요일 4:18-19> 말씀이 있었다.

예배 후 각각 조별로 소개하는 시간에, 회원 가정들이 계속 변화하고 성숙되어간다는 내용의 고백을 들으며 모두가 가정사역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서로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날 아침 7시부터 일어나 밥을 먹고 9시에 지리산 남부탐방안내소에 들러 지리산에 관한 종합 안내를 들으며 지리산의 광대함을 느꼈고, 또한 말로만 들어왔던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을 직접 보았다. 이어, 야생화와 구름정원으로 유명한 노고단으로 향했다. 1시간 30분정도 돌로 포장된 길을 걸으면서 가을 속으로, 그림던 단풍 속으로 한없이 한없이 들어갔다. 수심 개가 넘는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만들어낸 부드럽게 펼쳐내는 산의 실루엣은 가을의 화려함과 더불어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함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마지막 집결지인,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정령치 휴게소에 들러 갈대와 기우는 해, 바람과 가을 속에서 펼쳐진 산자락을 마음에 품고 아쉬움을 남긴 채 서로서로 안이주며 축복했으며 모든 것을 준비해준 김채수, 송용관 집사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함즐함울

www.pcltv.org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제 190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0월 22일



〈서울칸티클합창단〉
제2회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에 출연하는 서울 칸티클합창단은 2005년 3월 초에 창단되었으며, 대부분의 성악 전공자와 몇 명의 합창 지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례, 예수님을 위해 다시 사는 것



고강국, 김광덕, 김민수, 김순자, 김태희, 김현민, 김혜진, 박공순, 박선희, 박정심, 박효정, 배종모, 신희수, 오영진, 유익형, 이지윤, 이진범, 최봉금, 최원희 <세례자> 권성호, 신동아, 이우석 <입교자>

10월 15일 오후 5시부터 중예배실에서 세례 예식이 열렸다. 정회성 목사의 인도로 모두 22명의 지원자들이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예배가 많은 교우, 가족 친지의 축하와 격려 속에 드러졌다. 완연한 가을 저녁, 피아노와 첼로의 은은한 연주와 시온찬양대의 특별 찬양은 세례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해주었다.

정회성 목사는 (갈 2:19-20)의 말씀으로 “세례”는 생명의 예수님을 위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전하며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

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22명의 세례자 입교자들은 4주간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통한 세례교육을 받았고 세속식에도 참여했다. 마지막 5주에는 문답식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22명 중에는 3쌍의 부부가 같이 세례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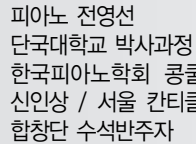
길가에교회 바자회 11월4일 오전 10시

주님의교회 첫 번식 교회인 길가에교회는 가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연다. 오는 11월4일(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첫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



오는 수요일...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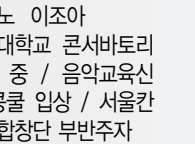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가 오는 10월 25일(수) 저녁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인 형편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결식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모으고자 하프타임사역팀과 제1남선교회에서 준비하였다. 후원에 동참할 분은 음악회 전후로 대예배실 입구의 현급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후원금은 전액 정신학원과 지역 사회의 결식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전문 성악가로 구성된 서울칸티클합창단(지휘:이동훈)과 소프라노(박미자), 플루트(박성민,이윤영), 바이올린(김성혜) 등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음악회를 위하여 참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뜻있는 자리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피아노 전영선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한국피아노학회 콩쿨
신인상 / 서울 칸티클
합창단 수석반주자



피아노 이조아
숭실대학교 콘서트바토리
재학 중 / 음악교육신
문 콩쿨 입상 / 서울칸
티클합창단 부반주자



소프라노 박미자
파리마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
스위스 Jaume Aragall 콩쿨 1
위 / A. Catalani 콩쿨 최고가
수상 수상 / 이화여대 겸임교수

나의 신앙 이야기 -장계영 2면

세례 입교자 간증 3면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4주간 교사훈련원에 훈련을 받으시면 내년에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새로 오고 있지만 교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훈련원은 11월 5일부터 26일 (오후 3시~5시)시까지 중강당에서 열립니다.

주님의교회 환경학교

일시 : 11월 1일~11월29일까지 5주간 (수)오전 10:30-12:00(90분)
장소 : 초등부실(3층)
강사 :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내용 : 매 강의마다 15분씩 성경 말씀을 녹색의 눈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휴간공고※
10월 29일 휴간 합니다.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②

예배의 현장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역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가난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지난주 일 30집 예배에는 김 미 자 호스피스 선교사가 초대되어 간 중 을 했다. 회 중 들 은 김 선교사의 귀한 간증을 들었다. 평범한 한 권사의 헌신된 삶이, 죽음을 직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죽 음을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 들이게 하였고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 에게도 새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30대 사역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 안 모아온 80만원의 바베트의 만찬* 을 맡 기암 환자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 고 있는 4명에게 전달했다.

*바베트의 만찬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정신'을 따라 실천하는 30대 사역 의 구제운동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길가에교회 바자회 (1면에 이어서)



길가에교회는 올 4 월에 첫 번째 "사랑 나 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를 위해 길가 예교회와 주님의교회 의 많은 성도들이 참 여해 주었다. 집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한두 번 입고 넣어 놓은 옷들, 선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 아이들이 크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약기나 장난감, 그릇, 악세사 리 등을 기증해 주었다. 이렇게 기증 받은 물건들과 바자회에서 빠 질 수 없는 떡볶이, 순대, 오뎅 그리고 부침으로 이어지는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풍성한 바자회였다.

이번 바자회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다. 참여를 원 하는 사람은 길가에교회에 문의하면 된다.

길가에교회 031-552-2273~4

정계영 (집사,중보기도 팀장)

다.

우리 교회도 10월 26일, 28일에 중보기도사역 자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훈련받고, 기도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10월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5명의 중보 기도 팀장들이 중보기도사역자 세미나(주강사: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를 다녀왔습니다. 팀장으로서 기대보다는 의무감이 앞섰는데 첫날부터 은혜와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만이 아니라, 기도 자세를 강조하고 많은 기도 시간을 갖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처럼 셋이 한 팀 이 되어 한 사람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주며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도로 돕는 시간이 있었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팔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역할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도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성벽

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막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손을 내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도 있구나, 내가 바로 파수꾼이구나 하는 깨달음 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 셸으며 성도들이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기도제목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는 함께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참 뜻이겠지요.

훈련된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실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섬겨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연합함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이며, 티끌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고상한 의무입니다.

06.10.15 세례자 간증

세례 간증 이진범 (5-1)

지금까지의 저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 전부였습니다. 좀 더 풍요한 문 명의 혜택을 누리고자 그 것만 바라보며 가는 단순한 삶의 연속이었습 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내 자신이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예수 님도 단지 역사상의 인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례교육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틀인 법이나 질서를 위반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저의 생활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며 미래를 준비하며 단순히 살기를 원했 답니다. 아내를 따라 교회를 몇 번 출석한 적은 있으나 믿음에 대한 확 신이 부족하고 세상 일이 너무 좋아 교회를 등한히 하였지만 세례교육 과 구역 모임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

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 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수님을 맘속에 내주로 새기고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람직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항상 기도 하며 감사하는 삶, 예전과 달라진 삶 을 살겠습니다. 세 례를 받게 도와주 신 교우님들과 세례 로 새 생명으로 거 듭나 느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 싶 습니다. 살롱



입교 간증 권성호 (2-7)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 다.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에 나가 영세도 받고 신앙 생활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저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냉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을 찾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 속에 앞만 보며 세속적으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이 없는 공허한 생활에 안주하며 채워지지 않는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불안한 세월을 살아 왔습니다. 사업이 부진할 때는 아내와 잠을 보기도 했으며, 사월 초파일에는 절도 세 군데 나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위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고 기도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 도중, 교회에 나

갔으면 좋겠다는 딸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 하였 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8개월 동안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구역 모임 참석과 수요일예배 참석하며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 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예전 생각과 세상에서 인 정받으려고 노력했던 나의 단순한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나 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 리 가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 속 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부터는 가족들이 둘러 앉아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살 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게 해 달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습 니다. 특히 아내와 같이 세례를 받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 신 큰 영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세례를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신 구역 식구들과 세례예식팀 그리고 목사님께 많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양육클래스

일본어성경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소회의실>



양육클래스 일본어성경반은 지난 2005년 3월에 시작되어 3학기째를 맞는다. 강의는 일본인인 이시 야마유리씨가 진행하는 문법과 신영숙 권사가 진

행하는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글자도 모르던 성도들이 점차 시 간이 지나가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말하기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숙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극 놀이를 하는 등 수 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양육과정이 안정되고 참여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훈련된 후에는 일본의 교회와 교류하는 방안 도 연구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4층 소회 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모임에 뜻 있는 성도들은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별말씀을, 천만에]
It's all right. [You're welcome.]
오른손 ⑤로 턱을 한두번 가볍게 두드린다.